다시 떠오른 '쓰레기 대란' 공포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쓰레기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택배·배달 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 가격이 회복하지 못하는데다 폐기물 줄이기 정책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1만여명의 선별도우미도 전문성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사진=KBS 화면 캡처

21일 '이데일리' 가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활폐기물이 4,890t에서 5,349t으로 늘었다. 상반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돼 택배나 배달 등이 급증하면서 1회용품과 포장 비닐 등이 대거 배출된 탓이다. 문제는 수도권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도를 높이면서 상반기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고 폐기물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폐기물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422억 원을 들여 1만843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투입해 재활용품 분리 선별 효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물질이 묻거나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들이 섞여 있어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40~50%에 그쳐 단가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자원관리도우미는 4개월간의 단기 일자리로 전문성이 부족한 노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이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에 더 취약한 노인들이 자원관리도우미로 일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업무 시작 전 도우미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을 온라인으로 교육할 예정" 이라며 "환경공단과 함께 도우미 활동을 점검하면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보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전국 해수욕장, 이달 말까지 모두 폐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서 다시 커진 데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여파로 전국 해수욕장이 8월 31일까지 차례로 폐장된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개장한 전국 251개 해수욕장 가운데 전날까지 107곳이 이미 문을 닫았고, 나머지 144개 해수욕장도 이번 달 말까지 폐장할 예정이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날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고, 전국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의 해수욕장 방문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며 "해수욕장을 방문하더라도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큰 물놀이 활동이나 샤워장 이용, 밀집한 장소 방문은 피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당부했다.

한편 해수부가 17일 기준으로 전국 251곳 해수욕장의 누적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6천387만)

▲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폐장 안내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유튜브 (www.youtube.com/watch?v=ulvFKAdgMBg) 화면 캡처

의 39.2% 수준인 2천504만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5천493만명이 방문한 대형 해수욕장은 올해 1천962만명이 다녀가 방문객이 64.3% 감소했다.

지난해 이용객이 30만명 아래인 중·소형 해수욕장은 올해 542만명이 다녀가 지난해 같은 기간(894만명)보다 39.4% 줄었다.

e쿠폰, 희망 추석 선물 1위

비대면 문화 확산 영향

▲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추석 선물로 'e쿠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코로나19에 명절 풍속도까지 달라지고 있다. 올 추석에 귀향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감하고, 전통적인 명절 선물인 한우나 과일 등의 선물세트 대신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 'e쿠폰' 이 추석 선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온은 20일,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000명 고객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트렌드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1%가 이번 추석 받고 싶은 선물로 'e쿠폰' 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62.5%는 온라인에서 선물을 구매 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한우나 과일 등 신선식품을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이 32.9%, 건강식품을 선호한다는 답변은 21.1%였다.

고가의 선물세트로는 예년처럼 한우나 갈비 등 육류 선물의 선호도(31.5%)가 여전히 높았으며 중·저가 선물 세트 선호도에서는 참치나 햄 등의 가공 식품 세트(40.1%)가 1위를 차지했다.

유통업계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추석 선물세트 구입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객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유통업체들은 사전 예약 전용 상품을 개발해 자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사전 예약 판매를 실시하고, 상품권 증정,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며 달라진 명절 문화로 인한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50.1%는 집에서 귀향이나 여행 대신 가족들과 연휴를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